



고대안산병원뉴스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NEWS

SEPTEMBER / OCTOBER, 2015

발행 | 11월 30일 · 격월간 · No.54

발행인 | 차상훈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 · 전화 | 1577-7516 · Fax | 031)412-5659 · 홈페이지 | <http://ansan.kumc.or.kr> · 발행일: 11월 30일 (격월간)



高大의료원, 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박차

‘향후 10년의 편리함’ 차세대 EMR 개발 순항, 내년 6월 오픈
고려중앙학원, 의료원 미래성장동력에 전방위 지원

고려대의료원이 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재호)의 50억원 지원을 받아 올해 초부터 삼성SDS와 함께 본격 시작한 차세대 EMR 구축사업이 내년 6월 오픈 및 적용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구축사업에 고려중앙학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차세대 EMR 개발사업비로만 50억원을 지원했다. 재단은 이번 지원뿐만 아니라 과거 처방전달시스템(OCS) 구축부터 화정연구동 건립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첨단 의료시스템과 특성화 진료 및 연구 인프라,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모두 겸비한 선도적인 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10년의 편리함을 만들겠다’는 사업목표로 시작한 차세대 전자의무기록(EMR)사업은 환자진료를 위한 모든 기록과 자료들을 표준화하고 DB화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초의학 연구용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와 병원 경영 효율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의료원 역점사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의료원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사전 컨설팅에서부터 구축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들을 집중 투입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식 생성 절차의 일환으로 분석을 통한 표준화 검토 작업이 한창이다. 취합된 서식을 통해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편리한 EMR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빠르고 편리한 진료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임상연구 지원을 위한 표준화 기반 기록 축적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의료원은 차세대 EMR시스템과 OCS, PACS 등 주요 의료시스템의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특히, 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자체 인프라를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Contents

2P 전문 진료과 소개

응급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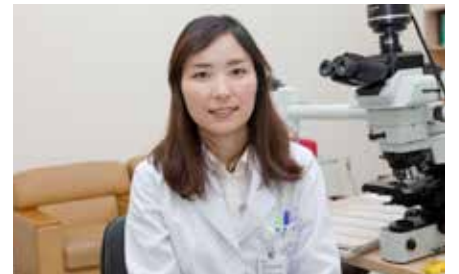
3P 고대안산병원 무료봉사

외국인환자 무료검진 실시



4P 의료진동정

대한병리학회 의ham학술상 수상
병리와 김영혜 교수



5P 연구동정

오송-세종-안산 중개연구 기반
구축 심포지엄 개최



7P 건강정보

간 건강, 적당한 음주와 조기검진
으로 지켜라



How to contact 고대안산병원

- 전 화 예 약 - 진료예약센터 : 1577-7516
예약시간 : 평일 08:00 ~ 18:00, 토요일 08:00 ~ 13:00
- 인터넷예약 - 홈페이지(ansan.ku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
※예약일정이 확정되면 진료일 전날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SMS문자가 발송됩니다.
- 진료협력센터: 031)412-5103 ● 응급의료센터: 031)412-5381 ● 종합건강진단센터: 031)412-5865



고려대학교 병원 모바일웹 접속



지역 및 서해안 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역할 수행

응급의학과는 일차적으로 응급상황 발생 순간부터 환자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소생시켜 생명을 보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역할이 있다. 대규모의 재난 시에는 발생하는 대량 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 전 처치와 이송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적절한 지시를 내려 지역사회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이다.

2000년 5월 이성우 초대 과장 취임 후 같은 해 ‘응급의료센터’를 개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0년 제 2대 문성우 과장 취임 이후 현재 4인의 응급의학전공의, 5인의 수련의, 33명의 간호사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실 내 경환자 진료실, 32개의 응급병상, 소생실, 처치 및 수술실, 격리실, 소아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센터 전용 방사선실 및 CT실을 가동하고 있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원내 응급환자의 소생 및 생존은 물론, 지역사회 심정지 생존율 향상, 재난대응체계 및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서해안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경기도 서남부 응급의료권역 인구는 3,849,481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1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7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주로 서울에 인접한 경기남부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안산시, 화성시는 도시지역, 농어촌 지역, 도서지역, 대규모 공단지역이 위치해있는 매우 다양한 성격의 지역사회로 넓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의학과는 행정지원동 증축과 맞물려 응급의료센터확장, 응급전용 중환자실 신설, 지속적인 인력충원, 소아응급의료체계 신설 등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응급의학과는 임상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이거니와 유기적인 응급의료 시스템, 그리고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등 사회조직과의 연계 또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고대안산병원 응급의료센터는 1999년부터 안산시 및 경기 서남부 지역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직 중 인 5명의 전문의 모두 구급대원에 적절한 병원 전 응급의료 처치를 제공, 교육하는 구급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응급의학과는 보건소, 소방서, 주요 의료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안산시 응급의료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심정지 대응체계, 재난대응체계 등 각종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안산시에서 발생한 병원 밖 심정지 환자 대응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재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14년에는 ‘안산시 중장기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연구용역’(발주: 안산시)의 일환으로 안산시 재난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공동체 재난대응 워크숍과 시나리오 기반 도상 훈련을 유관 기관과 실시하였다. 이는 안산 지역에 처음으로 시도된 지역사회에 특화된 훈련으로 향후 공단과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해 시·소방·의료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응급의료센터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서해안 권역의 중심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상의 의료수준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장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심화된 연구 및 교육을 이어가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도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외국인환자 의료봉사 시행

나눔을 통해 우리 이웃의 삶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지역사회봉사의 일환으로 10월 18일과 11월 7일 양일에 걸쳐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이번 의료봉사는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를 비롯하여 간호부, 약제팀, 진단검사 의학과, 의료사회사업팀 등 30여명의 교직원들이 자발적 재능기부로 의료봉사활동이 이루어졌다.

지역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시작한 의료봉사는 안산지역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의료시혜 차원에서 배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 돼 있다.

일반적인 진료공간이 아닌 협소한 공간이라 다소 치료하기 힘들었음에도 몸이 불편한 환자들 의 치료 편의성을 위하여 동선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혈압검사, 혈액검사를 시작으로 가정의학과에서 먼저 예진을 거친 후 각 세부전공 나눠 치료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진료를 기다린 외국인 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밝았다.

가슴 통증으로 호소하며 진료소를 찾아 현장에서 진료를 받은 한 환자는 “평소 회사일에 바쁘고 언어문제로 병원 찾을 엄두도 못 냈는데, 직접 와서 치료해주시 감사하다.”며 “평소 몰랐던 건강상태까지 꼼꼼히 살펴주고 자세히 설명해주니 주말에도 찾아온 보람을 느낀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이번 봉사에서는 소아환자들의 진료가 많았는데 공단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부모들이 쉽게 평일 근무를 포기하고 진료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료를 진행한 전공의는 “소아 환자는 성인환자에 면역력 부족으로 인해 쉽게 병이 악화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지만 외국인 가족의 생활환경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이들이 한국에서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 활동을 펴기도 했다. 지난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안산병원에서 시술을 받아 요양 중인 외국인의 가정을 찾아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약속했다. 진료를 받은 환자는 “병원이 멀고 움직이기 힘들어서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직접 찾아와 불편한 부분을 확인하고 꼼꼼하게 돌봐주시니 타국에서도 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봉사활동 단장으로 참석한 위장관외과 김승주 교수는 “타국에 와서 심신이 많이 지쳤을텐데 미약하나마 이번 진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병원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의료봉사활동을 비롯하여 안산역 무료진료, 선민회, 행복나눔무료급식소, 끝전성금, 코시안의 집 후원 등 지역사회를 밝히기 위한 사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



병리과 김영혜 교수 ‘대한병리학회 의함학술상을 수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김영혜 교수(병리과)는 대한병리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의함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의함학술상은 대한병리학회에서 2005년부터 젊은 병리학자를 위한 대한병리학회 기금상으로, 전년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 논문에 수여하는 학술상이다.

수상논문은 2014년 국제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pathology에 실린 “Loss of CDC14B expression in clear cell renal cell carcinoma: meta-analysis of microarray data sets”로 투명세포신세포암의 마이크로에레이 데이터를 메타분석하여, 투명세포신세포암과 정상조직 간에 발현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를 찾아내고, 찾아진 유전자 중 CDC14B의 발현을 투명세포신세포암과 정상 조직에서 면역화학염색을 이용하여 비교하여 증명하고, 임상-병리학 적 인자와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CDC14B 단백질의 기능을 추정하고, 투명세포신세포암의 발생에 기여함을 밝힌 논문으로, 이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에레이 메타분석이 병리의사에게 biomarker를 발견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영혜 교수는 수상소감으로 “대한병리학회에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이렇게 학술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김영식 병리과장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는 병리의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수면전문가’ 최지호 교수 ‘밤을 경영하라’ 출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최지호 교수는 침구류 브랜드 이브자리가 운영하는 수면 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밤과 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신간 도서 ‘밤을 경영하라’를 출간했다.

‘밤을 경영하라’는 최지호 교수와 이브자리 수면환경연구소가 공동 집필한 저서로 그동안 간과되었던 밤시간과 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면에 대한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수면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수면전문회의 시험, 국제수면의학인증시험 등을 통과해 각종 ‘국제수면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최지호 교수의 임상경험과 12년간 연구해온 수면환경연구소의 연구결과가 포함되어 더욱 흥미를 더하고 있다.

최지호 교수는 ‘잠을 줄이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시대이므로 이제는 밤과 잠도 스마트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책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적정수면시간, 올바른 수면습관과 수면환경을 파악해서 건강뿐 아니라 좋은 성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중인 최지호 교수는 2006년 미국수면전문회의 시험에 국내의사 중 최연소로 합격하여 ‘International Sleep Specialist’ 자격을, 2007년에는 미국 수면기사시험에 국내의사 중 최초로 합격하여 ‘Registered Polysomnographic Technologist (RPSGT)’ 자격을, 그리고 2015년에는 세계수면학회(WASM) 국제수면의학인증시험에 국내의사 중 최초로 합격하여 ‘Sleep Disorders Specialist’ 자격을 취득하였다.📖

병리과 김영혜 교수

대한병리학회 위원
대한세포병리학회 정회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이비인후과 최지호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정회원
대한수면학회 정회원
미국수면의학회(AASM) 정회원
미국수면의학전문회(ABSM)시험 합격
미국공인수면기사(RPSGT)시험 합격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전문분야:

부비동염, 수면무호흡증, 알레르기성 비염, 코골이

진료시간:

오후(월) 오전(화) 오전(금)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중개연구 기반 마련 위한 심포지엄 개최

고대 안산병원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과기대, 약대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자들과 함께 모여 '오송-세종-안산'을 아우르는 보건의료기술(HT) 광역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고대 안산병원(원장·차상훈)은 지난 7월 1차 심포지엄에 이어 10월 29일(목) 함께 제 2차 오송-세종-안산 중개연구 기반구축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향후 안산-오송-세종을 잇는 '오세안 HT 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나갔다. 차상훈 고대 안산병원장의 인사말과 각 기관별 소개로 시작된 이번 심포지엄은 기관별 수행연구 발표를 통해 다자간의 연구 현안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활발한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기초와 임상분야를 아우르는 중개연구 가능성을 타진했다.

차상훈 고대 안산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차 심포지엄에 이어 고대 안산병원에서 2차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다자간의 연구현안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기초와 임상분야를 아우르는 중개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유기적인 협조 체계와 함께 의료산업시대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고대 안산병원은 지역유일의 연구혁신 대학병원으로서 경기테크노파크, 전기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연계하는 등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네트워크 및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5 안산병원 의생명연구센터 의과학연구회 심포지엄 성료

고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지난 10월 1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2015 안산병원 의생명연구센터 의과학연구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새로 시작하는 의과학연구회의 소개와 함께 각 연구회별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연구자들과 참석자들이 연구방법에 대해 교류했다.

차상훈 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의과학연구회는 이제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지만 향후 안산병원과 고대의료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중요한 시작입니다"며 "오늘 개최되는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연구동향과 다학제 공동 연구계획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면서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연구에 부단히 경주하여 국내외 의료 발전을 선도하는 모음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고 말했다.

한편, 고대 안산병원은 지역유일의 연구혁신 대학병원으로서 안산사이언스밸리(ASV)의 정부출연연구소 및 보건의료기술(HT) 관련기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고대 세종캠퍼스 과기대, 약대 등과 연계하여 보건의료기술 R&D 광역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연구관리팀 031-412-6882



고대안산병원 안산시관광의날 기념행사에서 안산시로부터 감사패 수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은 9월 25일(목) 호텔인터불고 안산에서 열린 제 42회 2015 안산시 관광의날 기념행사에서 안산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국제진료센터 조원민 교수는 표창장을 받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2015 안산M밸리 록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료자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안산시의료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토양마련에 기여한 공로로 안산시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또한 국제진료센터 조원민 교수는 안산시와 안산시의료관광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안산시장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안산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료관광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의료관광활성화는 안산시와 안산병원 양 기관 모두에게 있어서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고대 안산병원은 국제진료센터를 통해 국제의료관광 사업 및 지역사회 상호교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소화기질환 최신지견의 모든 것, 「2015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화기센터 연수강좌」 성료
지역사회와 고대안산병원이 진료협력 개선방안 제시

지난 10월 17일(토) 고대 안산병원 대강당에서 '2015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화기센터 연수강좌' 가 개최됐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화기센터에서 주최한 이번 연수회는 이상우 대한소화기학회 차기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 소화불량 환자에 대한 접근 ▲ 위·식도 역류질환의 내과적 치료 ▲ 위·식도 역류질환의 외과적 치료 ▲ 양질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 청결 ▲ 만성설사 환자의 체계적 접근 ▲ 올바른 내시경 세척과 소독 ▲ 만성 B형 간염 치료 : 언제·어디까지? ▲ 간섬유화의 평가, 측정, 해석 ▲ 증례로 보는 체장질환 등 소화기질환에 대한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 됐다.

소화기내과 이상우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연수강좌를 통해 소화기 질환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보다 발전된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바란다”고 했다.

연수회 마지막 세션으로 진행된 '지역사회 병의원과 고대안산병원의 진료 협력 개선방향'에서는 최원석 진료협력센터 부센터장, 구자설 소화기내과 과장, 정연숙 내시경실 수간호사, 최동락 시흥시 의사회장, 이원진 연세우리의원 원장, 변형규 무지개연합의원 원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패널과 참석자들은 '건강강좌와 같이 해당 환자들이 들을 수 있는 행사를 안내하기위한 자료와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배포해줬으면 좋겠다', '환자 예약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을 만들고 홍보하면 지역과 상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진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화기센터는 앞으로도 연수교육 및 건강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고대안산병원 메르스방역에 대한 공로로 안산시로부터 감사패 수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은 10월 2일(금)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30회 안산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안산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안산지역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지역거점병원으로 금년 메르스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단 한명의 메르스환자도 발생시키지 않아 그 공로로 감사패를 받게 됐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활동이 안산시의 메르스방지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지역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감염예방을 위해 직원교육 및 시설투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다 발전된 의술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첨단 어지럼증 및 평형장애 진단 기기 도입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은 최근 이비인후과에 복합 원인의 어지럼증 및 평형장애의 진단 및 기능 회복 훈련을 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들여와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적자세검사기(Dynamic Posturography)란 우리 몸에서 평형 유지에 주요 역할을 하는 시각, 체성감각, 평형감각의 세가지 기능을 각각 나누어 평가하는 검사기기이다. 이비인후과에서도 진단이 가장 어려운 분 야인 어지럼증 및 평형장애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귀 안에 있는 말초평형기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 힘든 경우도 있다. 동적자세검사기는 이와 같은 환자에서 원인을 찾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며, 균형 감각 이외에도 정상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반사 기능에 대한 평가 또한 가능하여 자세유지기능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비인후과 나윤찬 교수는 “이번 동적자세검사기의 도입은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감소되어 발생한 평형장애의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평형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에서 시각, 체성감각 등 다른 기능의 보완을 통해 균형을 잡는 치료 계획의 수립 및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 안산병원 이비인후과는 이번 장비 도입 이전에도 꾸준히 첨단 평형기능 검사장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어지럼증 및 평형기능의 이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이 가장 편안하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최적의 치료를 시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간 건강, 적당한 음주와 조기검진으로 지켜라

지방간이 간경변으로 이어져 건강에 치명적, 미리미리 예방이 최선

사람잡는 술, 간질환의 원인

국민 1인당 술 소비량 세계 1위. 우리나라 40대 남자의 사망원인 1위 간암. 매일 TV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간장약 광고. 이런 우리의 현실은 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게 하지만 정작 간질환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 간질환 환자들을 자가치료와 민간요법 등에 의지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 남자는 아직도 러시아 남자와 전 세계에서 술 많이 먹는 국민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인 간 질환의 주범은 만성간염을 일으키는 간염바이러스와 음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20~30대 젊은층에서도 간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꽤 많다. 간 질환은 일반적으로 40~50대에 많이 나타나지만, 간에 대한 관심과 건강검진시 간수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젊은층 사이에서 병원을 찾고 있는 사람이 많다. 직장인 건강검진시 혈액검사상 간세포에 이상이 있어 세포가 재기능을 못하거나 파괴되면서 다량으로 유출되는 효소를 수치(일반적으로 말하는 간수치)를 ALT(GPT), AST(GOT)라 하는데 간 기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40U/L 이상을 기록한 젊은층들이 증가하고 있다.

ALT와 AST는 간세포 안에 들어있는 효소로서 간세포가 파괴되거나 손상을 받으면 유출되어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급성이나 만성간염 시 이들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간염의 정도를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검사로서 일반인들이 흔히 '간수치' 또는 '간염수치'라고 부른다. 정상범위는 대개 40까지이며, 이 검사는 간염의 정도를 아주 정확히 반영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간염의 초기진단시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된다.

알코올성 간질환, 음주가 원인

알코올지방간은 지나친 음주로 인해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하며 이런 상태가 지속돼 간경변이나 두드러진 증상은 거의 없으나 잦은 피로와 상복부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초음파검사나 간기능 검사에서 우연히 알게되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지방만 축적되는 지방간과 달리 간세포가 파괴되고 염증이 일어나 간이 심하게 손상을 받게 된다. 또한 발열, 황달, 복통, 심한 간기능 장애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돼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보통 매일 80g이상(소주 1병정도)의 알코올을 10~15년 이상 마시는 경우 간이 딱딱해지고 그 기능을 소실해 큰 위협이 된다.

과도한 음주를 자제해야

적당한 음주는 간경변이나 간암 발생을 초래하지 않으나, 과도한 음주는 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서양에서는 말기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50%가 알코올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만성간질환의 80% 정도가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 만성B형 간질환환자의 약 40%는 습관성 음주자로 조사되어 있다. 알코올에 의한 간손상은 마신 알코올의 양과 관계 있고, 술의 종류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비싸거나 좋은 술을 마신다고 해서 간손상이 적게 오는 것은 아니다. 대개 하루 40~80g 이상의 알코올을 매일같이 10년 이상 마실 때 알코올성 간질환이 올 수 있는데 매일 소주 한 병 정도를 10년 이상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알코올성 간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일부 사람에서는 더 적은 용량의 알코올에서도 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여자와 만성C형간염 환자는 알코올성 간질환에 취약하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하지만 꼭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서만 지방간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술을 전혀 못하거나 소량을 마시는 경우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비슷하게 간세포에 지방이 쌓여 지방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인의 경우는 10~24%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비만한 사람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발병하며 여성호르몬제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약제를 오래 복용해도 지방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건강검진받아 예방해야

알코올성 간질환이 심한 사람을 보면, 배에 복수(복수)가 차거나 비장이 커져 있고, 가슴이나 목에 '거미상 혈관종'이라 하여 조그만 빨간 반점이 나타나 있으며, 식사를 잘 하지 않아 영양 상태가 나쁘다. 또한 피로, 전신 쇠약감을 느끼고, 피부가 노랗게 보이거나 오줌색이 진하거나 빨갈게 보이면 한번쯤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신이 잦은 음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질병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받아 병을 키우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고려대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임형준 교수는 "알코올은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 경변 등 각종 간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바이러스성 간염을 가진 환자에게는 간 기능을 악화시키는 위험 인자로 작용한다"면서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비알코올성 간질환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는 거의 증상이 없으므로 성인병 검진 및 일반건강진단 등을 통하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간 환자가 비만이나 과체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체중감량과 적절한 식사요법,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건강증진센터

GRAND OPEN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건강증진센터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랜드 오픈 하였습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병원이라는 비전과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첨단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인간중심의 서비스를 실천하는
최고의 종합검진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환자중심으로 새 단장 한 건강증진센터는 평생건강관리의 동반자로
신뢰감 있고, 개인에게 적합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강증진센터가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안산병원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